

# 소통행보 정책 기대감 높여

### 익산시, 반환점 돈 주민과의 대화... 3일 읍면지역 마무리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민생현장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통행보로 정책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지난달 14일부터 진행 중인 '2023년 익산시 주민과의 대화'가 반환점을 돌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쾌하고 감동 깊은 이야기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시정설명과 건의사항민을 청취했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전문 사회자를 초청하고 정 시장과 주민들의 격의없이 진솔한 대화로 폭넓은 이야기를 담아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갈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이색

사연을 소개하고 대담 안전을 건의하는 등 거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목소리를 공유하며 감동 또한 선사하고 있다. 금마면의 70대 나이에 원광대학교에 입학한 이장님, 옹포면의 손끝으로 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열서, 옛 일제강점기 이마무라 농장터에 지어진 카페촌(카페·금촌농장 역사성 등 주민들이

정 시장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지역의 생활과 서사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장 건의사항 청취시간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실무계장들이 함께 배석해 그간 궁금했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답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참여한 주민들에게 민원해결사의 모습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민생 행보의 또 다른 특징은 읍면지역 학교장들의 참여와 건의사항이 예년 대비 대폭 늘어난 점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군조정, 특성화 학교 도입 등 시와 학교의 상생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간담회장의 높은 관심은 경로당을 방문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상당면 수산경로당의 방문 시 주민들이 앓을 자리가 없어 일부 주민들은 건너편의 CCTV를 통해 정시장과 수산경로당 회원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진풍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투어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편리하게 익산을 여행할 수 있어 시작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익산시투어 시작부터 인기

### 익산시, 원광대 신입생 익산여행 맞춤형 투어 실시

익산시투어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편리하게 익산을 여행할 수 있어 시작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익산시투어는 정규코스를 도는 순환형과 테마형 버스로 나누어 운영을 시작한 지 20일만에 테마형에 총 92건 1,900여명이 예약하며 익산방문 흥행몰이 대표산수로 등극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시작한 순환형 투어버스는 익산역을 기점으로 주말마다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해주고, 테마형 투어버스는 세계유산, 숲은보석, 익산국보, 인기관광, 삼시순례 코스 등 다양한 주제로 맞춤형 운영해 관광객 교통편의를 높이고 있다.

테마형 투어버스는 우선 원광대학교 신입생 22개학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테마형 맞춤형 코스를 2가지 테마로 운영해 여행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 국보 코스는 원광대학교에서

출발해 마륜사지, 마륜산굴, 백제왕궁 박물관, 청년시청, 익산근대역사관과 익산아트센터로 끝으로 원광대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마륜산골에서 합박 스테이크 만들기 와 원광대 만들기 체험이 인기가 높았다.

인기관광지 코스는 원불교중앙총부를 시작으로 교도소세트장, 두동교회, 성당포구마을, 나비위성당을 방문하고 원광대학교로 돌아온다. 인기 관광지 중 교도소세트장의 최수복체험과 성당포구에서 비빔개비찰차 체험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이와 함께 2023 익산방문의 해를 기념해 마륜사지, 심곡사, 송림사를 둘러볼 수 있는 익산 삼시순례 코스는 벌써부터 예약인원 200여명을 돌파하며 큰 사랑받고 있다.

또한 소규모 단위 관광객들이 순례, 치유, 자연힐링 등 다양한 주제로 익산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테마형 투어버스 예약이 줄을 잇는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지역 교육기관 우선 계약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의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업에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업들은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며 "익산에 가면 일자리라는 걱정 없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전했다.

특히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폴리텍대 등 지역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각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지역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품 구입이나 공사 계약 시 우선 계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군산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근로자 등의 휴게권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7개 단지에 총 1억 3천만원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의 휴게실, 위생시설 및 근무시설에 시설의 개·보수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의 비품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약 15개 단지에 단지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사업 대상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4월부터 '2023년 민방위교육' 실시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었던 민방위교육을 정상 운영한다.

3월 시에 따르면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은 2020세(2003년생)부터 2024세(1983년생)까지이다.

1~2년차 대원은 오는 11월부터 28일까지 군산청소소년수련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연 4시간으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학대피훈련,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화학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시간 사이 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은 오는 6월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www.kcmes.or.kr)에 접속하거나 발송된 교육통지서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후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 문제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 맑은 물 공급 블록화... 이달 밤·새벽 단수 예고

### 4일 마동·남중동, 6일 마동·중양동, 11일 부송동·어양동 추진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이달 일부 지역에 늦은 밤부터 새벽 수도물을 단수 또는 혼탁수가 발생 수 있음을 알렸다.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다.

시와 K-water는 수도물의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수압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화 공사로 인해 단수가 예상됨에 따라 밤샘작업으로 추진한다.

블록화 구축은 급수구역을 전 지역을 53개 블록으로 나눠 구축하고 블록마다 수량 및 수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블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 단계인 블록 고립으로 해당 블록의 수도물 공급 중단에 따른 수압

분석 등을 통해 블록이 제대로 고립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달 신흥급수구역 3개 소블록에 대해 4일 마동·남중동 6일 마동·중양동, 11일 부송동·어양동 순으로 블록 고립을 진행한다.

해당 블록의 고립 작업 시 단수 및 혼탁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 작업마다 20여명의 작업자를 투입하여 밤샘 작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전 지역을 53개로 블록화해 단수나 누수 등 사고발생시 블록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뤄져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와 시민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군산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군·자치위 법정업무 계획으로 용역대상은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및 행민구역 등을 제외한 1.4km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비방향 등 공업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방향, 기반시설계획 및 환경관리 방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성운 도시계획과장은 "산단을 제외한 우리 시 순수 공업지역이 해방동 일원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